

“악인의 마음에는 속임이, 화평을 논하는 자는 희락이 있느니라”
베이징에 세계 최대 군 지휘본부 건설 중



중국이 전시에 대비해 수도 베이징에 세계 최대 군사 지휘본부를 건설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시설은 미국 국방부인 펜타곤보다 크고, 중국 지도부를 위한 핵 병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위성사진을 분석해 “중국이 베이징에서 남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에 1,500에이커(약 607만㎡) 규모의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복합 단지를 건설 중”이라고 전했다. FT는 “이번 건설은 2027년 중국군 창설 100주년이 되기 전 새로운 무기와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뤄졌고, 지난해 중반부터

대규모 공사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현장에 핵전쟁을 포함한 모든 분쟁 상황에서 중국 군 지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형 병커가 들어설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전현직 미국 관계자들은 자국 정보기관이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 지휘본부가 될 것으로 보고, 해당 건설현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현장은 이달 초부터 건설 활동으로 분주했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이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대부분의 대형 부동산 개발이 부진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상업용 부동산 프로젝트의 경우, 쇼 룸이 있는데 이 현장은 쇼 룸이 없고 인터넷에 관련 뉴스 등 언급이 없는 것 등은 이 현장이 군사시설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평가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이번 프로젝트는 ‘베이징 군사 도시’로 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레니 바비아즈 미국 국가지리정보국(NGA) 전직 분석가는 “5㎢ 면적에 최소 100대의 크레인이 지하시설을 개발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지하통로를 통해 연결된 여러 지하시설을 건설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데니스 와일더 중앙정보국(CIA) 전직 책임자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군 지도부를 위한 새로운 지하 고급 지휘 병커는 중국이 세계적 수준의 재래식 군대뿐만 아니라 첨단 핵전쟁 능력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익명의 중국 전문가는 “해당 시설은 강화된 콘크리트 구조와 깊은 지하 터널을 비롯해 민감한 군사시설의 모든 특징을 갖고 있다”면서 “펜타곤의 거의 10배 규모로, 미국을 넘어서려는 시진핑 주석의 야망에 걸맞는 규모”라고 밝혔다. 또 “이 시설의 목적은 단 하나, 점점 더 정교하고 강력해지는 중국군을 위한 최후의 병커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출처: 뉴스 종합).

악을 피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러니와 악인에게는 양화가 가득하리라(잠언 12:20-21)

하나님, 중국이 전쟁 상황을 대비해 최대 규모의 군사 지휘본부를 건설 중이라는 의견이 제기되며 국제 사회에 긴장을 주고 있음을 돌아보옵소서. 중국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악을 피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어 재앙과 화가 가득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중국과 열방의 교회가 이 소식 앞에 만유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화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증거하게 하소서. 마지막 영적전쟁의 때에 기도로 싸우는 교회를 통해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부흥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세이브코리아’ 기도회, 11개 지역서 자유민주주의 수호 위해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모임인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네 번째 집회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로를 비롯해 부산, 인천, 대전, 대구, 춘천, 세종, 김천, 구미, 울산, 전주, 포항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동시 개최됐다. 기독교일보에 따르면, 이날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왔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견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대 상임대표 안용운 목사는 아울러 “교회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과 용기이다.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이며, 무엇이 정의이며 불의인지 올바르게 분별”해야 한다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3·1운동을 이끌었던 선조들의 신앙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한길 강사는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들은 정치의 중요성을 깨닫고,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역대하 7:14)

하나님,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정치적 혼란으로 위기를 맞이한 대한민국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자신의 민족과 하나님 영광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던 느헤미야와 같은 자들이 더욱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모두가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와 스스로 낮추고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이 땅을 고치시는 주님의 기적과 회복의 응답을 모두가 경험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 받게 하옵소서.

▲ 스웨덴 교육시설서 대낮 총기난사…“용의자 포함 약 10명 사망”

4일(현지시간) 스웨덴의 한 교육시설에서 대낮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약 10명이 사망했다. AP, 로이터 통신 등을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건은 이날 낮 12시 30분께 수도 스톡홀름에서 약 200km 떨어진 외레브로 지역에 있는 성인 교육센터에서 발생했다. 이곳은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초·중학교 교육을 비롯해 이민자 대상 스웨덴어 수업,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는 학교이다. 경찰은 사망자 신원을 여전히 확인하고 있으며 부상자의 전체적인 규모도 아직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범행 동기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테러’와 연관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만 공범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스웨덴에 매우 고통스러운 날”이라며 “평범한 학교에서의 하루가 한순간에 공포의 순간이 된 모든 이들에게 위로로 전한다”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오늘 외레브로에서 발생한 사건은 정말 끔찍한 일”이라며 “그러한 폭력과 테러는 우리 사회, 적어도 학교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린도전서 2:6,16)

하나님, 대낮 총기 난사 사건으로 충격과 슬픔 가운데 있는 스웨덴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죽이며 해하는 범인의 모습을 통해 진리를 떠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영혼의 위중함을 모두가 보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이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복음의 지혜임을 스웨덴이 알아 그 진리 앞에 굴복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주를 가르치는 일에 순종함으로 나아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온 땅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내 주의 생명은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싸였을 것이요” 신앙 때문에 병원 치료 거부당한 베트남 기독교인, 기적 체험



베트남 농촌 지역 기독교인들은 신앙 때문에 병원 치료를 거부당하는 데 익숙하다. 한국순교자의소리(이하 한국 VOM)는 “베트남 일부 농촌 지역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의사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치료를 미루거나 거부, 감당할 수 없는 치료비를 제시해 응급 치료조차 받지 못하게 만든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 기독교인 부부는 심장 질환을 앓는 딸이 지역 병원에서 생사를 결정하는 치료를 거부당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한 뒤 기적을 경험했다. 지역 병원 의사는 동 부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했고, 다른 의사는 수술 조건으로 상당한 액수의 성의 표시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동 형제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 그 대신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대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이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했다. 동 형제가 자란 마을에는 기독교인이 많지 않았다. 고지대에 사는 마을 주민 대부분은 조상을 숭배하는데, 그들은 세상을 떠난 친척을 위해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 음식을 바친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조상을 배신한 반역자’라고 부른다. 그래서 동 형제의 딸에게 일어난 것 같은 나쁜 일이 기독교인에게 일어나면 조상들이 천벌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 동 부부는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자주 거부당하고 모욕당한다. 가까운 친척들마저도 비난하며 도와주지 않았다.

동 형제의 아내는 결혼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친정 식구들은 그 즉시 그녀와 모든 관계를 끊었다. 당국자들은 동 형제를 공격하기 위해 불량배를 고용하기도 했으며 폭행범들을 피해 숨어 지내다 붙잡혀 폭행당했다. 그러나 보복하지 않았다.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것이 주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 형제는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고 믿었다. 부부는 딸을 위해 기도한 뒤, 다른 지역의 병원으로 가기로 했다. 동 부부는 그 병원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했다. 그러나 아이를 진찰한 의사는 어떤 것도 묻지 않고 바로 수술을 시작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의사는 이미 누군가가 수술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것은 동 부부가 고향 마을에서 드렸던 기도의 응답이었다. 동 형제는 당시 시편 23편 말씀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한국 VOM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에 관한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베트남 농촌 기독교인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듣고 있다”고 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좇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싸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사무엘상 25:29)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주의 백성을 당신의 생명 싸개 속에 감추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당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낙심치 않고 주를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하심을 받은 동 형제와 그의 가족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베트남에 이러한 복음의 증인들을 더 많이 세워주시고, 핍박에도 주를 향한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사 그 땅에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 드러내 주십시오. 열방의 교회가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선포되는 베트남 되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세르비아, 중국 기업 부실공사 참사에 대규모 시위

세르비아에서 최근 중국 국영기업이 주관한 기차역 부실공사로 발생한 참사를 계기로 정권 부패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일 가디언을 인용해 전했다. 1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시위 참가자 수만 명은 세르비아 북부 제2의 도시 노비사드에서 도시의 다리 3개를 점거해 3개월 전 참사로 숨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1일 노비사드 기차역에서 지붕이 붕괴돼 15명이 숨지고 2명이 사지를 절단해야 하는 중상을 입었다. 1964년 처음 지어진 이 역은 2021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중국 국영기업 컨소시엄이 보수 작업을 했지만 4개월 만에 무너졌다. 이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서는 정부의 무능과 뇌물이 지목된다. 세르비아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장관 13명을 기소했으며, 밀로시 부체비치 총리는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 규탄 시위는 지난주 세르비아 전국 100여 개 소도시와 마을로 번졌고, 법관들까지 시위 행렬에 가세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사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시편 15:1-2,5)

하나님, 정부 관료들이 뇌물을 받고 중국 기업과 유착하여 부적절하게 체결된 계약으로 발생한 참사로 인해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세르비아를 돌보아 주십시오. 정직하게 공의를 실천해야 할 정권의 타락으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 자들이 마땅히 그 죄악에서 돌이킬 뿐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서는 은혜를 주옵소서. 세르비아의 교회가 나라의 신음 앞에 높아진 마음이 아닌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위기 가운데 놓인 이 나라가 복음으로 인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 조지아, 친유럽 야당 지도자 체포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위치한 조지아에서 이라클리 코바히제 총리가 유럽연합(EU) 가입 협상을 임기 동안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반정부 시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2일 야당 지도자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연합뉴스가 3일 AFP통신을 인용해 전했다. 이날 오전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로 향하는 고속도로 입구를 막으려고 하는 수천 명의 시위대를 저지하던 조지아 경찰이 친유럽 야당 지도자 니카 멜리아와 지지 우굴라바 전 트빌리시 시장을 체포해 구금했다. 다른 야당 인사들도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아 내무부는 이날 시위가 벌어지기 전 고속도로 차단 행위가 최대 징역 4년 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날 경찰이 시위 초기 최루탄과 물대포를 사용했으며, 400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위대는 작년 10월 친러시아 성향 여당이 승리한 총선을 다시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달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시편 119:142,144-145)

하나님, 현재 정권을 잡은 친러시아 여당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시작된 국민들의 반정부 시위가 EU 가입 중단 선언으로 더욱 격화되는 이 나라를 다스려 주소서. 경찰들의 강경 대응과 정부의 언론 탄압 등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자신의 유익과 권력을 위해 무력을 행사하는 위정자들을 꾸짖어 주시고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때 영원한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시하사 조지아가 전심으로 주를 찾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교훈들을 지켜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소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기독교 탄압 강화...2024년 징역형 6배 증가



이란 정부가 기독교인을 억압하기 위해 2024년에 기독교 신앙을 지키거나 전파한 사람들에게 2023년에 비해 최대 6배에 달하는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아티클18(Article 18)동맹이 밝혔다.

징역 기간 증가의 주요 원인은 2023년에 가정 교회 단속으로 체포된 사건들이 이란 사법 체계에서 처리되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5명의 기독교인이 긴 형량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개종자 4명은 ‘선교 활동에 가담’하고 ‘국가 안보에 반하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각각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기독교인은 ‘국가 안보를 훼손하고 기독교를 홍보했다’는 이유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란 정부는 시오니즘(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의 국가 건설을 지지하는 이념)을 적대적인 외세로 간주한다.

지난해 최소 139명의 기독교인이 신앙과 관련된 문제로 체포됐으며, 이들은 2021년에 개정된 형법 제500조에 따라 더 긴 징역형에 처해지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란 사법 시스템은 또한 약 80만 달러(약 11억 4,00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반체제 교회 단체들의 재정적 기반을 약화시키려 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아티클18과 기타 종교자유 지지 단체들은 2008년부터 2023년 사이에 테헤란 사법부에서 처리된 300만 개 이상의 사건 파일을 분석한 결과, 300건 이상의 사건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이유로 기소된 사례와 관련 있었으며, 이는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기독교인 박해 사례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감옥에 갇히거나 박해당하는 기독교인 양심수들이 여전히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란 정부는 자신들이 ‘존경받는 국가’로 보이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기독교 박해라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사건 파일 분석으로 폭로됐다. 이슬람 혁명수비대(IRGC)의 위협은 단순한 빈말이 아니었으며, 지난해 기독교인들에 대한 기소의 70% 이상이 개정된 제500조에 따라 이루어졌다.

보고서는 “이란 정부는 기독교 공동체의 성장과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이들을 고립시키고 재정적으로 약화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개정된 형법 제500조를 사용해 기독교 단체들의 재정을 조이는 데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재산과 차량을 몰수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란은 오픈도어선교회의 2025 세계 감시 목록(WWL)에서 기독교인이 살기 가장 어려운 50개국 중 9위에 올랐다. 보고서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란 교회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요한1서 5:4-5)

하나님, 기독교 공동체와 개인에게 개정된 법으로 과중한 징역형과 벌금 부과로 탄압을 강화하며 교회의 부흥을 막기 위해 재정적인 압박까지 가하는 이란 정부를 책망하소서. 이런 억압으로 교회의 생명을 짓밟으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 굳게 서서 세상과 타협지 않고 승리하는 자들로 성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도구가 된 개정법이 속히 철회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증인 된 성도들을 통해 복음이 힘 있게 전파되어 진리의 밝은 빛으로 나아오는 이란 되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민주콩고 반군 휴전 하루 만에 광산마을 점령...고마에서 여성 수감자 피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동부를 장악한 반군 M23이 일방적인 휴전 선언 하루 만인 5일 남키부주의 광산 마을 나비브웨를 추가로 점령했다고 연합뉴스가 AP통신 등을 인용해 전했다. M23은 지난 3일 인도주의적 이유로 휴전을 발표했으나, 정부군과의 교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남쪽 부카부로 진격 중이다. 이에 민주콩고 정부는 M23의 휴전 선언이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콩고 동부 최대 도시 고마에서 투치족 반군 M23이 점령한 후 교도소에서 여성 수감자 100명 이상이 살해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M23이 지난 3일 고마를 장악한 뒤 수백 명의 수감자가 탈출하는 과정에서 남성 수감자들이 165명에 달하는 여성 수감자를 성폭행했고, 대부분이 잔인하게 살해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마에서는 필수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고 전기, 수도 공급이 제한되는 등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난주 교전으로 최소 900명이 사망하고 3,000명이 부상했다고 유엔이 밝혔다.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시편 34:13-15)

하나님,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내전으로 혼란에 빠진 콩고민주공화국을 돌보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휴전을 선언한 반군이 점령을 이어감으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을 꾸짖어 주시고, 그들이 거짓과 악을 버리고 화평을 찾아 따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전 속에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이 눈을 들어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의인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여호와 하나님, 민주콩고의 교회가 이 환란의 때에 간절함으로 주께 부르짖게 하사 주의 응답하심을 입어 속히 그 땅에 주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시리아, 이슬람 반군 정권 교체 후 기독교 공동체 불안 고조

시리아에서 지난 12월, 14년간의 내전 끝에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이슬람 반군에 의해 축출되면서 기독교 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영국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전했다. 정권을 장악한 하야트 타흐리르 알샤(HTS)은 알카에다 계열 조직으로, 종교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지에서는 기독교인에 대한 차별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가톨릭 자선단체 '교회에 대한 원조'(ACN)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이슬람주의자들이 여성에게 베일 착용을 강요하고 대중교통에서 성별 분리를 시행하고 있다. 다마스쿠스와 알레포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국제사회의 감시로 인해 상대적으로 온건한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지만, 홈스와 하마 같은 중소도시에서는 기독교인에 대한 압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기독교 거주 지역은 비교적 평온하나, 외부로의 이동은 위험한 상황이다. 이슬람 무장세력이 검문소를 세우고, 개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소지품을 빼앗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빌립보서 1:27-28)

하나님, 시리아의 내전과 독재정권은 반군에 의해 끝이 났지만, 기독교인들의 권리와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이슬람으로 개종을 강요당하며 차별받을 때에도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합당하게 생활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또한 시리아 현 정권에 정직한 마음을 주사 그들의 말과 행위가 일치하게 하소서. 주를 예배하는 공동체가 마땅히 자랑해야 할 그리스도의 이름을 삶으로 높이게 하셔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의 증거를 받게 하옵소서.